

정경

사람과 마을이 함께 자리하며
새로운 내일을 여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Magazine

2026 09+10
vol.28

새벽종

새벽종

2026 09+10 vol.28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ISSUE NO.28
ISSN 2799-9343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함께 배우고 나누며 넓어지는 새마을운동의 성장

가을은 지나온 날의 수고가
알찬 열매로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발걸음도
사람과 마을을 지나

마을에서 시작된 마음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이어지고



더 넓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은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사람과 마을
그리고 세계가 나란히 열어나가는 길 위에
가을 들판 같은 풍성한 결실이
차곡차곡 여물어갑니다.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https://www.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instagram.com/letssaemaul](https://www.instagram.com/letssaemaul)

[facebook.com/letssaemaul](https://www.facebook.com/letssaemaul) blog.naver.com/letssaemaul pf.kakao.com/_zNxkxnT



CONTENTS

2026 09+10
vol.28

새벽을

열다

- 06

새마을-ing ①

네팔에서 피어난 나눔과 성장의 15박 16일
- 10

새마을-ing ②

초원의 나라 몽골,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 12

새마을-ing ③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새마을운동의 다음 50년
- 14

지구촌새마을 속으로

피지의 '솔레솔레바키'와 새마을운동이 만난 순간
- 16

초록빛 동화

작은 마음이 모여 풍성해지는 우리 마을
- 18

빛나는 사람들

성장으로 채워가는 새마을의 내일



Cover Story
마을 구석구석을 채우는 따뜻한 온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함께 흘린 땀방울은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바꾸고, 더 풍요로운 내일을 여는 열매가 됩니다. 세대를 잇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발맞추어 나아갈 때,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더욱 깊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도 새마을운동은 서로를 복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을

일구다

- 20

우리동네 새마을 ①

인천 옹진군새마을회
- 24

우리동네 새마을 ②

충남 천안시새마을회·천안서여자중학교 '청새동'
- 28

청년, 새마을하다

경북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
- 32

새마을을 만나다

고(故) 이찬규 전 옥천군 군북면협의회장 유족

내일을

꿈꾸다

- 36

그 노래, 그 길

강강술래 달빛을 따라 진도의 가을을 걷다
- 40

소통의 기술

추석 밥상 위 마음을 여는 안부의 기술
- 42

생활 백서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가을 풍경 속 비밀
- 44

새마을 브리핑
- 58

새마을 라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새마을스페!” 네팔에서 피어난 나눔과 성장의 15박 16일

2026 네팔 새마을해외봉사단

네팔의 인사말 ‘나마스떼’에 ‘새마을운동’이 만나 ‘새마을스페’로 피어났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26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2026 네팔 새마을해외봉사단 ‘새마을스페’가 현지 아이들과 뜨거운 나눔의 여정을 함께했다. 8월 26일 열린 해단식에서 단원들은 소중한 추억들을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실천한 새마을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15박 16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글 윤민지 사진 김병구



아이들의 맑은
‘안녕하세요!’
소리가 벌써 그립습니다.



처음 쥐어본 곡괭이,
함께 흘린 땀방울...
잊지 못할 여름!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새마을의 가치!



도움을 주려 갔다가
더 큰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는 배움.



네팔에서 만난 친구들아,
우리 오래오래
기억하자!



배수로 정비 노력봉사



스리 사와스라티 학교 놀이터 조성 준공식

땀방울 속에서 배운 네팔의 시간

출국 전 5일간의 사전교육 동안 네팔에서 진행할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분야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여행연습까지 마친 26명의 새마을해외봉사단원들. 그러나 13시간의 비행 끝에 마주한 네팔의 현장은 준비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단원들은 당황하는 대신 아이들의 눈빛을 살피며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수정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낯선 환경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

특히 학교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노력봉사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됐다. 낯선 곡괭이질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지만, 서로 요령을 나누고 힘을 보태며 학교 곳곳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갔다. 현지 교사 칼리(스리 스웨트 바라하 유치부)는 “마치 학교에 축제가 열린 것 같아요”라며 고마움을 표했고, 아이들의 환한 미소는 단원들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새마을스페’를 빛낸 4조 4색 활약상

문화와 놀이, 보건과 체육까지. 26명의 단원은 네 개 조로 나누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눴다. 준비한 것을 일방적

으로 전하기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그렇게 함께 웃고, 뛰놀고, 마음을 나누며 만들어낸 4개 조의 특별한 순간들을 소개한다.

CULTURE 문화조 ‘무난하조’

한글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아

우리가 나눈 것 한글과 한국 문화 우리가 배운 것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법

문화조는 한국어를 매개로 네팔 아이들과 따뜻한 만남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고마워’, ‘사랑해’처럼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인사말부터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한국어로 소개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익혔다. 배운 단어를 부채와 한지에 직접 적어보는 활동도 더해 한글을 쓰고 한국 문화도 경험할 기회를 넓혔다. 하지만 현장은 준비했던 계획과 사뭇 달랐다. 단원들이 읽어주는 발음은 곧잘 따라 하던 아이들도 막상 글자만 보고 스스로 읽거나 쓰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화조는 곧바로 수업 방식을 바꿨다. 코팅한 글자 카드 위에 여러 번 쓰고 지우며 글자의 모양을 익히도록 했고, 아이들이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문화조’ 박세빈 조장

“아이들이 한글을 낯선 공부처럼 느끼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놀이하듯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눈높이를 맞췄죠. 마지막 날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쓴 한글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PLAY

놀이조 '놀이체험조'

놀이가 되고, 만남이 되다

우리가 나눈 것 한국의 전통놀이 **우리가 배운 것** 웃음으로 가까워지는 법

놀이조는 한국의 전통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부스 형식으로 마련해 네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 직접 놀이를 즐기는 한편, 네팔 에는 어떤 놀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놀이와 문화를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놀이를 함께하다 보니 어색함도 금세 사라졌다. 함께 움직이고 웃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다. 놀이조 에게 놀이는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언어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 소통의 장이었다.



'놀이조' 임채희 조장

"처음에는 준비한 놀이를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땀 흘리며 웃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TOGETHER

체육조 '네팔은 두 개조'

함께 뛰고 웃으며 하나가 되다

우리가 나눈 것 태권도와 협동 체육활동 **우리가 배운 것** 함께 맞춰가는 방법

체육조는 태권도를 비롯해 공 옮기기 협동 게임, 축구와 피구, 배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준비했다. 태권도 시간에는 기본자세와 발차기를 익히고, 미트 차기를 체험했다. 아이들은 힘껏 발을 뻗어 미트를 찰 때마다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협동 게임에서는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 공을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특히 즐거워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축구와 피구처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목은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진행시간을 조정하고, 단원들도 운동장에 뛰어들어 응원하며 경기를 이어갔다. 준비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아이들의 반응에 맞춰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체육조 역시 '함께 만드는 봉사'의 의미를 배워갔다.



'체육조' 강해준 조장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며 서로의 움직임에 맞춰가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봉사란 우리가 준비한 틀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HEALTH

보건조 '네팔팔'

건강을 살피고 생활습관을 나누다

우리가 나눈 것 건강검진과 위생습관 **우리가 배운 것** 작은 실천이 만드는 변화

보건조는 '작은 교육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에 나섰다. 키와 체중, 허리둘레,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체온 등을 차례로 측정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도 자신의 수치가 궁금한 듯 적극적으로 측정에 참여했다.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법을 알려주는 보건교육도 진행했다. 학교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담은 안내판도 학교 곳곳에 붙였다. 양치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조원들이 직접 준비한 율동을 선보이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금세 동작을 따라 하며 흥미를 보였다.



'보건조' 조형빈 조장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려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활동을 해보니 아이들의 맑은 모습에서 저희가 배우고 느낀 점이 훨씬 많았죠.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는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팔에서 피어난 나눔, 다시 일상으로

지난 8월 26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2026 네팔 해외봉사단 해단식'이 열렸다. 귀국 후 3주 만에 다시 마주한 단원들은 반가운 미소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둘 꺼내놓았다.

황현균 단장은 활동보고를 통해 "무더운 날씨와 언어소통의 한계 등 현장의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선 단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봉사활동 소감을 전한 박소현 봉사단 대표(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2학년)는 "현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봉사"라고 말했으며, 박성현 봉사단 대표(울산청년새마을연합회원)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봉사였다"며 네팔에서 얻은 소중한 배움을 전했다.

봉사활동 증명서 수여와 우수단원 시상에 이어 연단에 오른 최형재 사무총장은 이번 봉사를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뜻의 '교학상장(敎學相長)'에 빗냈다. 최 사무총장은 "네팔

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네팔에서 얻은 배움을 나누어주길 바란다"라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해단식의 마지막 순간, 전 단원이 연단에 올라 새마을모자를 손에 들었다. "새마스떼!"를 힘차게 외치며 모자를 하늘 높이 날려 보냈다. 환하게 웃는 얼굴에는 15박 16일의 시간을 함께 해냈다는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네팔에서 나눔 배려와 협력, 함께 흘린 땀과 웃음이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이어져 또 다른 따뜻한 나눔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초원의 나라 몽골,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만큼 몽골이 품은 가능성도 넓다. 광활한 국토와 분산된 인구, 기후변화라는 현실 속에서 새마을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몽골의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살펴봤다.

글 조정호 기획경영국 기획예산팀장



몽골 토지행정청을 방문한 출장단

변화의 기로에 선 초원의 나라, 몽골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임직원 16명은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몽골을 찾아 몽골 토지행정청과 울란바토르새마을회,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농촌진흥청 몽골사무소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몽골의 농촌·축산 분야 과제를 살펴보고

현지 여건에 맞는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한·몽 농업·개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최근 양국 정상이 농업·축산 분야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개발협력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방문의 의미는 더욱 컸다.

드넓은 초원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몽골이지만 해결해야 할



울란바토르새마을회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과제도 적지 않다. 석탄과 구리 등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와 사막화·초지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는 약 360만 명에 불과하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돼 도시 문제가 심화되는 반면, 농촌은 주민들이 분산돼 교육과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겨울철 혹한과 폭설로 가축이 대규모로 폐사하는 '조드(Dzud)'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몽골의 특성 속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현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한·몽 협력, 현장에서 찾은 세 가지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은 몽골 토지행정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엔크 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국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국가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료재배와 축산 등에 활용할 자금도 지원하는 사업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난드 청장이 주목한 것은 지원 이후였다. 토지와 자금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역량이 필요하다. 토지행정청이 사업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교육을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물적 지원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역량을 더한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광활한 국토와 낮은 인구밀도가 반드시 새마을운동의 제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에서 오명규 농촌진흥청 소장은 "몽골의 모든 농가가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에 따라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가가 모여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전역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주민들이 비교적 모여 있는 지역에서 사료생산과 축산관리,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 작은 공동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도시에서도 확인됐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자르갈 회장이 이끄는 울란바토르새마을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와 공공장소 환경 정비 등 도시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생활환경에 맞는 과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한다는 점에서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새마을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함께하니 소득이 늘고 생활이 좋아졌다'는 경험 자체가 가장 강력한 새마을교육이 될 수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정부기관 간 협력이다. 몽골의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과 개발협력, 주민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KOPIA의 농업기술, KOICA의 개발협력 경험, 새마을운동의 주민교육과 공동체 조직·지도자 양성 경험에 몽골 정부의 토지·제도 지원을 더한다면 각 기관의 강점을 하나의 지역에서 연결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해 농업지역 개발 ODA의 통합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몽골에서도 하나의 지역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축산 지원을 넘어 유목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 교육·복지 접근성 향상, 공동체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초원의 가능성을 현실로

몽골이 마주한 현실은 새마을운동에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반드시 한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몽골 정부의 토지·금융 지원과 농업기술, 개발협력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역량을 더한다면 새로운 협력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초원의 크기만큼 몽골이 품은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원과 사람의 결합이다. 몽골의 초원에서 새마을운동이 주목한 핵심 역시 바로 이 '연결'에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새마을운동의 다음 50년

물길이 놓이고 집이 바뀌는 사이,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새마을운동은 이제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참여와 자립, 국가 차원의 마을개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글 장준철 국제협력국 국제사업팀장



출장단을 환영하는 파고노피 마을 주민들

5km를 걷지 않아도 되는 마을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최형재 사무총장을 비롯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직원 출장단이 파푸아뉴기니 이스턴 하이랜드 주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인 파고노피, 카페투구, 카무페레, 민다를 찾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주민들은 출장단을 맞으며 “할 수 있다(We can do it)”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파고노피 마을은 그동안 식수를 얻기 위해 인근 강까지 왕복 5km를 걸어야 했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산 정상 인근 수원지에서 마을까지 총 10km의 파이프를 연결 하면서, 800여 가구의 주민 모두가 집 앞에서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공사는 중앙회의 자체 지원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파이프를 묻는 데 주민들이 노동력을 보탬고, 토지도 직접 내어놓았다.

한 여성 주민은 “5km를 걸어 물을 길어오는 일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마을의 숙명과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일상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이 만들어낸 변화의 의미를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카페투구 마을에서는 우기마다 빗물이 새어 들어오던 전통 주택 28채가 새롭게 단장됐다. 새마을 지원금으로 지붕과 기둥을 마련하고, 마을 목수와 주민들이 벽과 실내 공간을 직접 완성했다. 한 주민은 “지붕과 기둥 자재만 지원받았을 뿐, 벽과 실내는 우리 손으로 직접 지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작은 지원이 큰 결과를 낳는 이유

이스턴하이랜드 주정부도 두 마을에 각각 약 1만 9천 키나 (약 630만 원)를 지원했다. 한국의 지원에 지방정부의 예산, 주민들의 노동력과 토지·자재가 더해지면서 작은 지원은 마을 의 삶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하는 쪽’이 모든 것을 떠안고 ‘지원받는 쪽’이 그저 기다리는 구조와는 다르다. 완성된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각 주체가 자신의 몫을 보태고, 주민들이 변화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업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다. 주민의 참여와 자립을 이끌어내는 새마을 운동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ODA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다. 카페투구 마을 지도자 시로스 사이코리(Siros Saikori, 46세)는 “새마을운동이 도입되자 도박과 같은 악습이 점차 사라지고,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보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출장단은 시범마을 아동 18명에게 국내 새마을지도자들이 마련한 결연 후원금 54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아이들의 학비와 책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선전화 없이 휴대폰을 든 사람들

파푸아뉴기니의 마을 곳곳에서는 흙길과 슬레이트·함석지붕, 마을회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모습 등 1970년대 새마을운동 초기 한국의 농촌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당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휴대폰이 주민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유선전화 인프라는 충분 하지 않지만, 이동통신은 이미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파푸아뉴기니 새마을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산물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득사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기록하며, 각지의 시범마을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휴대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나 상수도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 이 필요하지만, 이미 주민들의 손에 들려 있는 휴대폰은 마을 과 마을, 주민과 사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역시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역량 강화로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정보 접근

성을 높이고 마을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파푸아뉴기니 새마을운동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다음 50년을 그리며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이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25년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국가 마을발전모델로 공식 채택했고, 같은 해 11월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국 6,912개 마을에 각 3만 키나(약 800만 원)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스턴하이랜드에서 시작된 씨앗은 이미 이스트세픽, 엥가, 걸프, 헬라, 웨스턴 등 5개 주로 확산됐으며, 정부는 이를 22개 주 전역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파푸아뉴기니가 스스로 법과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마을개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4곳인 시범마을을 약 100곳까지 확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와 함께 파푸아뉴기니 대상 KOICA 공공협력사업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앙회가 교육,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을, KOICA가 마을 단위 사업을 맡는 역할 분담 모델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고, 다시 지역 협력사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은 양국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한국의 협력,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합한 농촌개발 ODA 모델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시범마을 아동 결연 후원금 전달식

오래된 공동체의 힘을 다시 깨우다

피지의 ‘솔레슬레바키’와 새마을운동이 만난 순간

피지에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솔레슬레바키’라는 문화가 이어져 왔다.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만난 두 사람에게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은 그리 낯설지 않았다.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솔레슬레바키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약 2주간의 초청연수를 마치고,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피지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박선우 사진 홍승진



☞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 새마을 초청연수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 주세요.

라투 이소아 투부나 | 저는 피지 타일레부주 마타이노코 마을의 원로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을 살피고 주요 계획과 의사결정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기업과 여성, 청년,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금융교육, 경영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타이노코 마을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번 초청연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켈레라 코토이수바 | 저는 피지 중앙정부에서 선임 경제전문가로서 농촌개발 정책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연수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직접 살피고, 피지의 농촌 현장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 현재 피지 농촌이 가장 시급하게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투 이소아 투부나 | 우리 마을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농경지에 들어와 주민들의 먹거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비가 많이 내릴 때 생활하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 위생 문제도 생깁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켈레라 코토이수바 | 국가 전체로 보면 해안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염수 침입의 영향을, 저지대와 강 주변 지역은 홍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염수 침입은 토양의 생산성을 장기간 떨어뜨려 농업 기반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입니다.

☞ 이번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투 이소아 투부나 | 새마을운동의 핵심정신인 ‘근면·자조·협동’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행동과 공동체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도자와 주민이 같은 목표로 힘을 모으면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켈레라 코토이수바 | 농업기술 관련 기관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피지에서는 농기계를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서 장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이용한다면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라투 이소아 투부나 |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함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주인의식과 책임감도 생깁니다. 피지 일부 농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찾는 것부터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 피지의 ‘솔레슬레바키’와 새마을운동은 어떤 점에서 닮아 있나요?

켈레라 코토이수바 | 솔레슬레바키는 오래전부터 피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전통 문화입니다. 출산이나 장례, 결혼식이 있으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농사를 지을 때도 서로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과거보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지에 돌아가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투 이소아 투부나 | 먼저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전부터 마을에서는 쓰레기 관리와 배수시설 정비, 마을회관 확장, 주민자원센터 등을

● 피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황 ●

 대상지역 중부구 5개 마을 (와이니 마쿠투·베이바틀로아·난갈라·난도아·마타이노코)	 주요과제 농촌지역 기후 회복력 강화,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 화장실 개량 ·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 · 배수시설 설치	 기대효과 · 지하수 오염 방지 · 수인성 질병 예방 ·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 · 안정적인 식수 공급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생활하수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추가했습니다. 귀국하면 주민 회의를 열어 앞으로 추진할 사업과 일정, 필요한 재원을 하나씩 논의할 계획입니다.

켈레라 코토이수바 | 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역 담당자들과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마을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켈레라 코토이수바 |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시범마을의 경험을 공유해 한 마을의 변화가 또 다른 마을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피지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솔레슬레바키의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근면과 자조, 협동의 가치를 더한다면 피지 농촌도 주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풍성해지는 우리 마을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한가위의 정이 깊어가는 계절
이웃들의 다정한 온기가 모여
우리 마을의 가을은 더욱 넉넉하게 익어갑니다.

그림 박경인

다문화 가정과 함께 송편 빚기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가까운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습니다.
오가는 웃음 속에 가족과 같은
정겨움이 피어납니다.

어르신 생신상 차려 드리기

정성껏 차려드린 생신상 위에
따뜻한 축하와 함박웃음이 더해지며
마을의 온기가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돌봄 교실 운영

알록달록 연을 만드는 돌봄 교실 속
아이들의 손끝에서 즐거운 상상이 자라나고
마음도 가을 하늘처럼 한 뼘 더 넓어집니다.

성장으로 채워가는 새마을의 내일

함께 나눈 온기가 만드는 변화의 발걸음

이웃의 기쁨을 나의 보람으로 여기는 새마을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배움을 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채

지정란

인천 웅진군부녀회장

웅진군새마을부녀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며 나눔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정성이 모여 섬마을의 하루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의 곁을 가까이 지키며 희망을 보태겠습니다.



강현경

인천 웅진군협의회장

지역에 손길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환경정화와 돌봄 활동을 이어가며 이웃들과 더 살기 좋은 웅진을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마을에 긍정적인 활력과 희망을 전하며 맡은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위

우찬우

경북 영주시새마을회장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새마을 활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마음을 모으고 발맞추는 과정에서 저 역시 한층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기쁘게 동참하고 그 마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새마을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연수

경북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벽화 그리기부터 독립운동 체험, 족욕 봉사까지 현장에서 이웃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눈 순간순간이 제게는 잊지 못할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배움을 마음에 품고, 청년다운 활기로 세대와 세대를 다정하게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갑



정현정

충남 천안시 불당1동부녀회장

정성껏 준비한 손길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때 가장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홀몸 어르신들과 이웃들의 환한 미소를 마주할 때마다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심으로 가까운 이웃을 살피며 따뜻한 정이 오가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유경

충남 천안시 쌍용2동부녀회장

새마을 활동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활동을 이어갈수록 제가 더 많은 행복과 위로를 얻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이웃과 더불어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니

다





섬과 육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또 하나의 집 ‘옹진군민의 집’

인천 옹진군새마을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서해의 푸른 파도가 끝없이 부서지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부터 덕적도와 영흥도까지, 옹진군은 유인도 25개와 무인도 75개가 점점이 흩어져 있는 섬 지역이다. ‘아름다운 섬의 고장’이라는 이름처럼 섬들은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에는 육지에서는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불편도 따른다. 개인적인 용무나 병원 진료를 위해 육지에 나갔다가 배편을 놓치거나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결항되면 당장 하룻밤 머물 곳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옹진군민의 집’은 이러한 섬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다. 인천 옹진군새마을회가 운영을 맡은 이곳은 군민에게는 육지에서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든든한 쉼터로, 지역에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옹진군민을 위해 365일 불 밝히는 집

옹진군민들에게 육지 나들이는 결코 단순한 외출이 아니다. 육지로 나오려면 반드시 배편을 살펴야 하고 돌아가는 배 시간까지 염두에 두고 하루 일정을 짜야 한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여객선이 결항되거나 아슬아슬하게 배를 놓치기라도 하면 꿈쩍없이 육지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숙박이었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나 주말이면 인천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빈 객실을 찾기 어려웠고 예상치 못한 숙박비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무엇보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묵을 곳을 찾아야 하는 일 자체가 큰 어려움이다. 지인이나 친척 집에 신세를 지거나 빈방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군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곳이 바로 옹진군민의 집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근의 기존 호텔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군민 전용 숙박복지시설로 조성했고, 옹진군새마을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총 28개의 객실을 갖춘 이곳은 365일 불을 밝히며 군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하게 육지에 발이 묶이는 날에도



옹진군민의 집 전경



이용객의 물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모습

묵을 곳을 찾아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며 다음 배편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군민의 편안한 쉼을 위해 구석구석 살피는 손길

옹진군새마을회는 각 면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군민 가까이에서 활동해 온 조직이다. 섬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을 직접 가꾸고자 운영기관 공모에 기꺼이 뛰어들었고, 2025년 옹진군민의 집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한 진심은 옹진군민의 집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온돌방과 침대방을 고루 갖춘 것은 물론, 육지에 나온 군민들이 식재료를 구입해 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생활 특성을 고려해 냉장·냉동 보관 공간도 따로 마련했다. 뱃길에 오르기 전까지 농수산물과 식료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작은 배려에는 섬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의

일상을 깊이 헤아린 마음이 담겨 있다.

군민을 향한 배려는 공간을 구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방을 내어주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꼼꼼한 관리가 뒤따른다.

28개 객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 체계도 촘촘히 갖췄다. 객실 청소와 야간 시설 관리, 주말 운영 등 업무를 세분화해 역할을 나누고, 이용객이 퇴실하면 객실을 구석구석 청소한 뒤 비품과 시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다음 이용객을 맞는다. 야간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해 긴급 상황이나 이용객의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객실관리일지와 청소일지, 야간근무일지 등 업무별 기록 체계도 마련해 관리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점검한다.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손길이 쌓이면서 웅진군민의 집은 군민들에게 언제 찾아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든든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웅진군민의 집을 찾은 숙박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이러한 노력은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웅진군청 이소민 주무관은 이렇게 말한다. “웅진군새마을회에서는 늘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필요한 곳에는 안내판을 더하고 작은 부분까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웅진군민의 집이 생긴 뒤 군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보다 ‘육지에서도 머물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다. 육지에 불일을 보러 나올 때마다 배편과 숙박 걱정을 함께 해야 했던 김용진 이장 역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섬에 사는 주민들은 육지에 일을 보러 나오려면 대부분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보고 당일 배를 타지 못하면 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객터미널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다음 날 들어가야 하는데, 예전에는 방을 구하지 못해 하루에 숙소를 두세 번씩 옮겨 다닌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 한 통으로 예약해 두면 편하게 머물렀다가 다음 날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 훨씬 마음이 놓이죠.”

그렇게 웅진군민의 집은 잠시 잠만 자고 떠나는 숙박시설을 넘어, 섬 주민들이 육지에서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또 하나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

머무는 쉼터에서 나눔의 공간으로

어느덧 웅진군민의 집이 문을 연 지 10개월. 이곳은 이제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든든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운영수익은 웅진군새마을회의 든든한 자립 기반이 되었고, 새마을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있다.

덕적면에서는 주민 약 1,900세대를 대상으로 떡국떡 나눔을 진행했고, 백령면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16개 리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을 전달했다. 대청도에서 복무하는 국군장병 약 370명을 위한 ‘수고했고! 힘내라 청춘!’ 응원 프로젝트도 펼쳤다. 바다 건너 섬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춘들에게 치킨과 떡, 수박화채 등을 전하며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냈다.

이러한 나눔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웅진군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웅진군민의 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선순환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약과 객실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꼼꼼한 시설 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운영수익을 활용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 역시 각 섬의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의 숙박복지를 높이는 일이 웅진군새마을회의 자립 기반이 되고, 그 결실이 다시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단단히 다져가는 것이다.

‘수익은 지역으로, 혜택은 군민에게’ 웅진군새마을회가 웅진군민의 집을 통해 만들어가고 싶은 방향은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군민들의 불편을 덜고, 그곳에서 피어난 결실을 다시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 그렇게 웅진군민의 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과 군민을 잇고, 나눔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초고령 농촌마을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 곳곳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병, 비료 포대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품목별로 분리배출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불법소각을 미연에 방지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랑의 빨래봉사



부녀회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해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한 후 깨끗하게 세탁·건조해 직접 전달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세탁 불편을 덜어드리고 안부를 살피며 생활 속 이웃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교실에서 싹틔우는 새마을의 내일 작은 씨앗에서 더 너른 숲으로

충남 천안시새마을회·천안서여자중학교 청소년새마을동아리 ‘청새동’



지역의 오늘을 살피며 오랜 시간 주민 곁을 지켜온 천안시새마을회가 새마을의 내일을 향한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다. 그 씨앗의 주인공은 천안서여자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새마을동아리 ‘청새동’이다.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배우고 직접 만든 정성을 이웃과 나누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하나씩 쌓아가는 아이들. 세대를 건너 이어져 온 새마을정신은 그렇게 천안의 한 교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싹트며 다음 50년을 향해 자라나고 있다.

글 장희주 사진 홍승진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본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오늘의 지역을 돌보고 내일의 새마을을 준비하다

충남 천안은 도시와 농촌의 매력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다. 70만 대도시의 활기 속에서도 31개 읍면동 가운데 12개 읍면 지역은 여전히 농촌의 풍경과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천안시새마을회의 발걸음 역시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춰 도시와 농촌을 두루 아우르며, 지역의 다양한 삶과 필요를 살피는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일상 속 실천과 환경정화, 자원 재활용은 물론 휴경기 경작, 하천 가꾸기, 김장과 밀반찬 나눔까지 활동의 폭도 넓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복구 현장에 힘을 보태고 이웃 돌봄에도 꾸준히 나선다.

지역의 필요를 세심하게 들여다본 생활밀착형 사업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촌 지역 어르신을 위한 ‘실버카 안전등 달기’다. 농촌에서는 보행보조기인 실버카(전동차)에 의지해 이동하는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지만, 해가 지면 이들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에 천안시새마을회는 실버카에 LED 조명등을 부착하는 사업을 기획해 10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교통안전지킴이 봉사단’을 발족해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갈 토대도 마련했다.

천안의 오늘을 지켜온 천안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의 ‘다음 세대’로 시선을 넓히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앞으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청년 세대와 접점을 넓히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천안시새마을회 송경석 지회장은 그 가능성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활동에서 찾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다음 세대와 어떻게 나누고 이어갈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다음 50년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답을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서 찾았습니다.”

그 답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긴 것이 바로 천안서여자중학교 청소년새마을동아리 ‘청새동’이다. 전국 새마을회 가운데 학교를 기반으로 청소년새마을동아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청새동 발대식 및 동아리 기 전달

교실에서 새롭게 배우는 새마을

청새동은 천안시청소년재단과의 만남을 계기로 첫발을 내디뎠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천안시새마을회는 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봉사동아리에 주목했고 천안시청소년재단을 통해 천안서여자중학교와 인연을 맺었다.

학교 역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천안서여자중학교 김수동 교장은 “새마을운동에는 바른 인성과 환경 보호, 이웃과의 나눔 같은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이를 직접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교육적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청새동은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중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허찬 협의회장이 첫 교육에서 “새마을운동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라고 묻자 녹색 깃발, 옛날 농촌, 할아버지·할머니 세대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천안시새마을회는 새마을의 의미부터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까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다. 새마을의 ‘새’는 새로움과 변화를, ‘마을’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새마을정신에도 청소년의 언어를 입혔다.

“‘근면’은 포기하지 않는 힘, ‘자조’는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 ‘협동’은 함께해서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깻잎김치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부녀회와 청새동 회원들

그렇게 이야기하니 아이들도 자신의 일상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활동 범위도 더욱 넓혔다. 거창한 구호나 대규모 봉사만이 아니라 친구와 부모님에게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일, 자신이 머무는 학교를 직접 깨끗하게 가꾸는 일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도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학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참신한 시도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시를 활용해 청새동만의 주제곡을 제작하며 아이들의 반짝이는 걸음을 응원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다. ‘새로운 꿈 가슴에 안고 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 더 나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죠’라는 노랫말처럼 함께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들과 함께 이어가는 초록빛 동행

이러한 마음은 아이들의 일상 속 실천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청새동은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첫 활동으로

새마을부녀회원들과 함께 파김치를 담가 이웃에게 나눴고, 지난 8월에는 두 번째 활동으로 깻잎김치 만들기에 나섰다.

깻잎김치 만들기가 진행되던 날, 천안서여자중학교 실습실은 학생들과 부녀회원들이 한데 모여 깻잎김치를 담그는 손길로 북적였다. 무엇보다 이날 만든 깻잎김치는 이웃에게 전하기 위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다섯 명씩 조를 이뤄 각자 맡은 분량의 깻잎김치를 만들었다. 조마다 부녀회원이 함께해 양념장을 만드는 법부터 깻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고르게 바르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줬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도 이어졌다. “깻잎김치에도 고추장이 들어가나요?” “깻잎은 한 장씩 양념을 발라야 해요?” 양념장을 만들 때는 다 함께 맛을 보며 간을 맞췄다. “짜요!” “달아요!” 하며 장난스럽게 맛을 평가하면서도 손끝으로는 정성껏 반찬을 완성해갔다. 살아온 세대는 다르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깻잎김치를 만드는 순간만큼은 한 가지 일을 함께 완성해가는 동료가 됐다.

임헌선 부녀회장은 “음식 자체보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든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한 반찬 나누기는 청새동이 이어갈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하나다. 천안시새마을회는 앞으로 천안서여자중학교 청새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새마을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봉사과 탄소중립 활동, 세대 공감 프로그램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기회도 늘려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도 확산해 청소년새마을동아리의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청새동이라는 작은 씨앗이 새마을이라는 토양 위에 이제 막 싹났다. 그 안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배우고 작은 실천을 하나씩 쌓아가는 아이들이 언젠가 지역의 문제 앞에서 먼저 움직이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오늘 심은 작은 씨앗도 새마을운동의 미래를 키워갈 든든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자란 나무들이 하나둘 모여 세대와 세대를 잇고, 새마을의 다음 50년을 푸르게 채워갈 더 너른 숲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깻잎김치 만들기에 열중인 학생들

농촌 일손 돕기



새마을지도자들이 천안배 주산지인 성환읍 일대 15여 농가를 찾아 만개한 배꽃에 화점(인공수분) 작업을 진행했다.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수농가의 부담을 덜고 한 해 농사의 순조로운 시작을 도우며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에 앞장섰다.

천안시협의회交通安全지킴이 봉사단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전동차(실버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交通安全지킴이 봉사단을 발족했다. 천안시 읍·면 지역 실버카 140대에 고휘도 LED 안전조명등을 무료로 설치해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초록빛 새마을에 싱그러운 청춘을 더해 다시 그려가는 내 고향 영주

경북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의 가치 위에, 지금 경북 영주의 청년들이 젊은 시선과 활력을 보태며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펼치는 새마을운동은 사뭇 색다르다. 기존의 봉사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이 품은 진짜 문제에 귀 기울이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 전에 없던 새마을을 빚어가고 있다. 2024년 7월 첫걸음을 내디딘 뒤 영주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 이들이 시작한 변화는 지역의 일상과 맞닿은 곳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글 장희주 사진 전경민



2026 찾아가는 행복버스

지역을 움직이는 청년 연대의 힘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의 출범은 새마을정신을 청년 세대만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낡은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는 벽화 그리기를 비롯해 환경정화, 휴공 던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마을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김근모 회장이 농장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자신의 버스를 봉사활동에 기꺼이 내놓으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별도의 운영비 없이 영주 구석구석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청년 회원들은 행복버스를 타고 경로당 등을 방문해 족욕과 마사지 봉사를 펼치며 이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고 있다.

이처럼 행복버스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경험은, 청년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지역의 더 넓은 문제로 이끌었다. 눈앞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고 해법까지 찾아보고 싶다는 고민이 싹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2026년 6월 ‘영주시 청년 로컬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 선포를 계기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나아가 이러한 의지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직을 문화예술교육분과, 돌봄복지분과, 사회적경제분과 등 3개 분과로 체계화했다.

문화예술교육분과는 지역의 문화적 공백을 메울 콘텐츠를 기획하고, 돌봄복지분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맞춤형

온기를 전한다. 사회적경제분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김근모 회장이 이처럼 분과 체계를 마련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지속가능성’이었어요. 활동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고 각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죠. 회장이 바뀌더라도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주의 ‘사과’에서 시작한 첫 번째 실험

분과별로 지역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청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였다. 청년들은 그 가능성을 영주의 ‘과수’에서 찾았다. “영주는 우수한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지만 정작 지역을 대표할 만한 공동 과수 브랜드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별 농가가 각자 출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성껏 키운 과일도 경매 가격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역 특산물에 공동브랜드와 새로운 판로를 더하고 유통과 판매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일자리와 수익까지 연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상한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주)청년이 그린 영주를 설립했다. 정하나 부회장은 “법인명에는



영주시 청년 로컬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 선포식



영주 특산물인 ‘프루츠 미’ 사과를 들고 포즈를 취한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

청년들의 손으로 영주의 내일을 직접 ‘그린다’는 의미와 새마을을 상징하는 녹색의 ‘그린(Green)’이 함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첫 사업 품목으로는 영주의 대표 과일인 ‘사과’를 택했다. 그렇게 과수 공동브랜드 ‘프루츠 미(Fruits Me)’를 만들고, 과일 박스의 일러스트와 패키지 디자인에도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브랜드를 완성해가고 있다. 지역 농산물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판로를 넓히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영주 전통시장에 오프라인 판매 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어디서나 영주의 과일을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토어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 거점을 마련한 데에는 유동인구 감소로 침체된 시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이끌어 활력을 더하려는 뜻도 담겼다.

영주의 사과에서 출발한 실험은 앞으로 채소와 한우 등 다양한 농특산물은 물론,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영주의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확장해갈 계획이다.

세대를 잇고, 새마을의 다음을 열다

영주의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만큼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도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는 진심이다. 특히 지역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사)세로토닌문화와 ‘새마을 문화예술 놀이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재능나눔 활동에 나섰다. (사)세로토닌문화는 난타 교육에 활용할 모듬북 15개를 기증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보탤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아동·청소년 약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로토닌 두드림 교실’이 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증받은 모듬북을 두드리며 난타를 배우고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쌓고 있다. 장재인 문화예술분과장은 “영주시는 아동친화도시이지만 정작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나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고민에서 이 프로그램이 출발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면 영주시새마을회에 모여 두 시간씩 난타를 배우고 있다. 평소에는 ‘시끄러우니 두드리지 마라’는 말을 듣기 쉬운 아이들이지만, 이곳에서만만큼은 모듬북을 힘껏 두드리며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다. 강사의 구령에 맞춰 “하나, 둘, 셋!” 신나게 북을 두드리고 흑여 박자를 놓치면 결



세로토닌 두드림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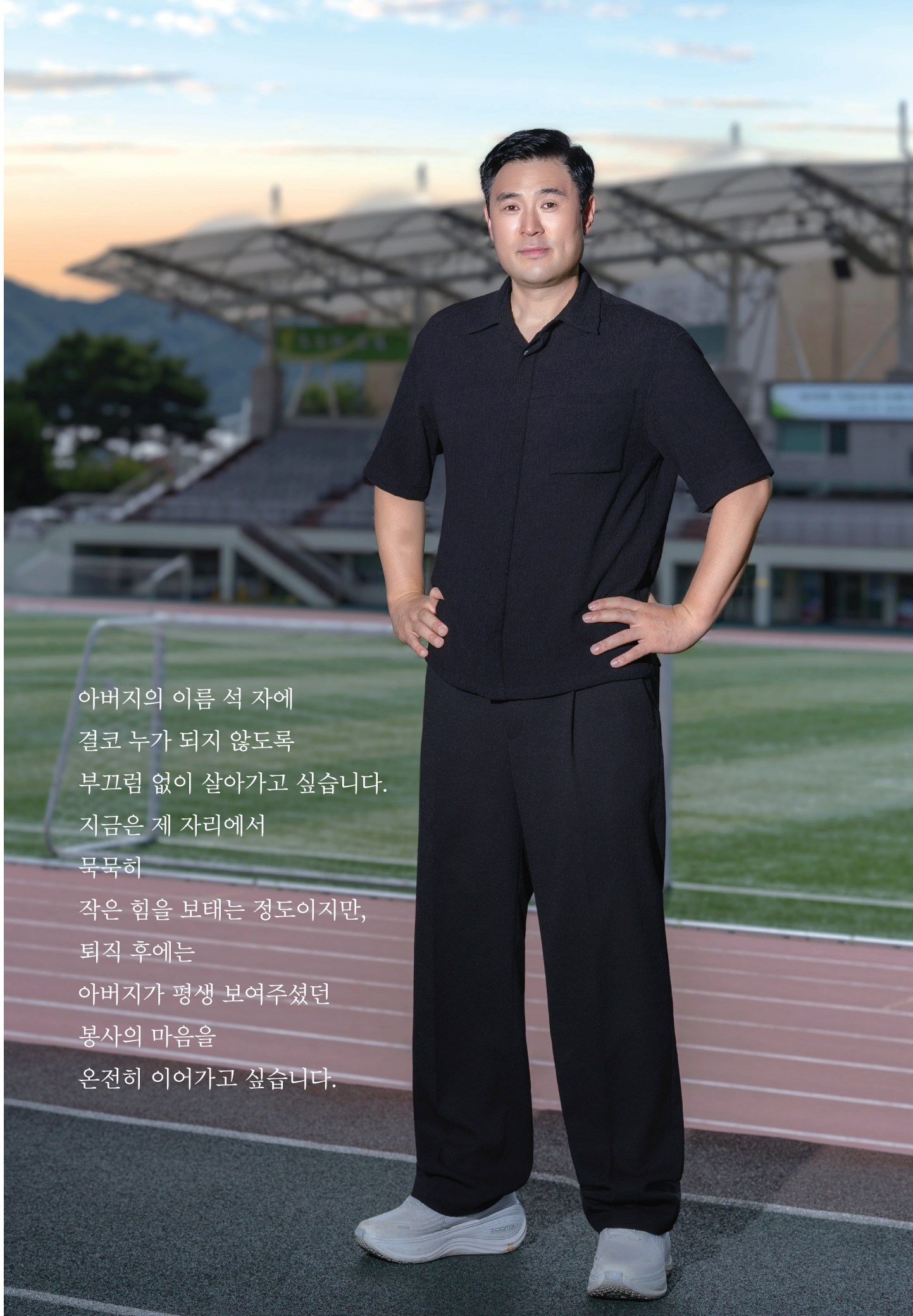
눈질로 옆 친구의 동작을 따라 하며 다시 호흡을 맞춘다. 이 수업의 운영을 돕는 안승은 총무는 아이들이 “두 시간 동안 서서 북을 두드려야 해 다리가 아플 만큼 힘들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난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이처럼 열정을 다해 합을 맞추는 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지역 축제나 복지시설 무대에 올라 직접

공연을 선보일 그날을 향해 아이들의 북소리는 오늘도 힘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는 새마을이라는 단단한 이를 아래 지역이 품은 문제와 가능성을 청년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의 정신을 오늘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를 영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19개 읍면동을 누비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등 선배 세대와도 손을 맞잡고 있다.

앞선 세대의 지혜와 경험에 청년들의 감각과 실행력이 더해질 때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청년들의 손으로 정성껏 채운 과일 상자가 영주를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아이들의 해맑은 북소리가 언젠가 무대 위에서 벅찬 울림으로 피어나기를, 그리고 오늘 내디딘 작은 발걸음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는 그렇게 가장 젊고 싱그러운 방식으로 영주의 내일을 힘차게 그려가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 석 자에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 자리에서
묵묵히
작은 힘을 보태는 정도이지만,
퇴직 후에는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셨던
봉사의 마음을
온전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초록 모자와 삽으로 일군 40년 아버지의 마음을 삶에 새기다

이승우 고(故) 이찬규 전 충북 옥천군 군북면협의회장 유족

어릴 적 승우 씨에게 아버지는 조금 특별한 존재였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초록색 모자를 쓰고 삽을 든 채 이른 새벽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곤 했다. 그때는 그저 바쁜 아버지roman 여겼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바쁜 발걸음이 향했던 곳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하나둘 깨닫게 됐다. 군북면협의회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새마을운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故) 이찬규 전 회장. 그 묵묵한 발자취를 지켜보며 자란 막내아들 이승우 씨는 어느새 아버지가 품었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자신의 삶에 조용히 들이고 있다.

글 김채은 사진 김병구



총 대신 삽을 든 어린 날의 아버지

이승우 씨의 어린 시절은 늘 새마을운동과 맞닿아 있었다. 아침이면 마을 어딘가에서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졌고, 주말이면 아이들도 구역을 나누어 동네 골목을 쓸고 닦았다. 온 주민이 모여 체육대회를 열고, 농번기에는 서로의 눈을 오가며 모내기를 도왔던 풍경은 그 시절 당연한 일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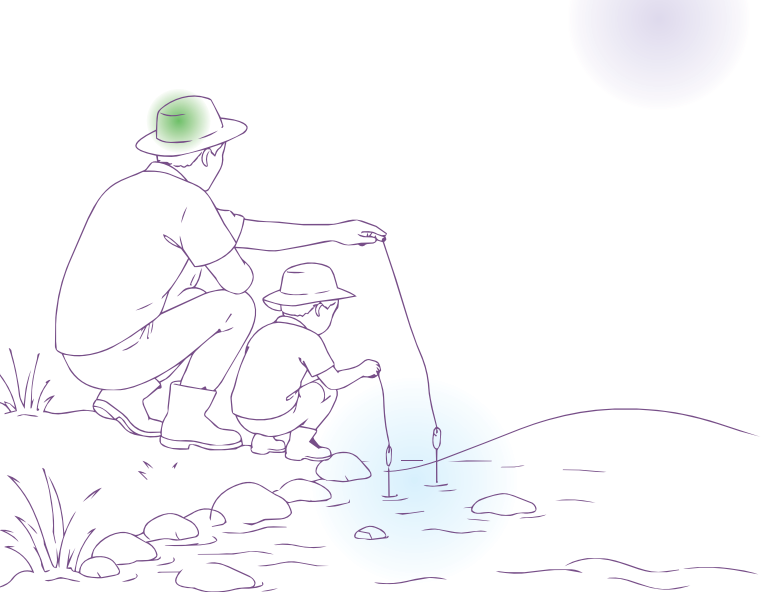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버지 이찬규 새마을지도자가 있었다. 새마을 활동이 있는 날이면 꼭두새벽부터 집을 나섰고, 모내기 철이면 주민들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논으로 향했다. 못줄을 챙기고 모를 준비해 경운기로 옮기는 일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어린 승우 씨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집에서 보다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민방위복을 입고 삽을 든 채 마을에 모여 대열을 맞춰 움직이던 아버지의 모습은 영락없는 군인처럼 보였다. 훗날에야 그 모습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의 한 장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 이찬규 전 회장은 1971년 새마을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군북면협의회 초대 회장과 옥천군새마을회 지회장을 역임

하며 40여 년간 지역 봉사와 주민 화합, 환경정비 등에 앞장섰다. 부추 재배 확대와 작목반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두 차례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에는 제1대 옥천군의회 의원과 제2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내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생생하게 닿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냈다.

“어릴 적엔 아버지가 마을을 지키는 군인인 줄 알았어요. 다만 총 대신 대신 삽을 들고, 군모 대신 초록색 새마을 모자를 쓰고 계셨죠. 지금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새마을 활동에 진심이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때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정말 새마을을 위해 태어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달은 40년의 무게

아버지가 마을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 늦은 밤에야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일곱 남매가 나란히 여행을



떠난 기억조차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막내아들 승우 씨 역시 당시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함께 나눈 소박한 추억들은 여전히 선명하다. 낚시를 좋아하던 아버지를 따라 개울가로 나가 제대로 된 낚시대 하나 없이 철사로 물고기를 잡던 그날은 승우 씨가 꼽는 행복한 어린 시절의 풍경이다.

그 시절 승우 씨는 아버지가 이룬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처 알지 못했다. 시골집 거실에 가득 놓인 상패가 어느 집이나 있는 흔한 풍경인 줄 알았고,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고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어린 눈에는 그저 평범한 액자 하나로 보였다. 하지만 자라나 직접 공직에 몸담고 지역 행정을 경험하면서 그 40년 세월이 얼마나 무겁고 치열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한 분야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텨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걸어온 삶의 진가를 가슴 깊이 느낀 순간은 발인 날이었다. 운구 차량이 고향 마을을 지날 때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왔고, 어느새 길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주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을 보며 승우 씨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마을에서나 집에서나 아버지는 늘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가족들에게도 지식이나 직함보다 사람의 됴됨이와 예의를 강조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승우 씨가 휴대전화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저장해 둔 이유가기도 하다.

“어렸을 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공직 생활을 겪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는 마음으로 군북면을 넘어 옥천 전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하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불러온 따뜻한 기적

누구보다 남을 먼저 챙기던 아버지를 보며 자란 덕분에, 승우 씨 역시 자연스럽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게 되었다. 그의 나눔은 10여 년 전 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시절 시작됐다.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들 중에는 제도의 틀 바깥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낡은 집에 살면서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그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침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30만 원이 계기가 되었다. 뜻깊은 곳에 써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실천에 옮기려니 망설여지던 그때,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함께 근무하던 후배 공무원들이었다. 군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네 명의 직원이 5만 원씩 마음을 모아 군북면에 20만 원을 기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우 씨도 용기를 얻었다.

처음에는 무더운 여름철 선풍기를 전하거나, 추운 겨울철 난방 연료를 보태는 등 현물 위주의 나눔을 시작했다.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현재는 매년



추위가 매서운 1월과 더위가 심한 7월에 한 차례씩 현금을 기탁하고 있다. 결코 쉽게 마련되는 돈이 아니다. 매달 용돈에서 10만 원씩 따로 떼어내 차곡차곡 모은 기금이다. 가끔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싶은 유혹이 스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는다. 그렇게 시작한 나눔은 어느덧 10여 년째다.

“기부는 반드시 큰돈을 손에 쥐거나 성공한 뒤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아껴 모은 5만 원, 10만 원에 담긴 마음이 훨씬 더 값지니까요. 저 역시 매달 조금씩 모으는 과정에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며 꾸준히 나눔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호뭇해하실 선택

아버지가 영면에 드신 후, 가족들은 부의금을 정리하며 고인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기릴 방법을 의논했다. 승우 씨는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고 제안했고, 형제들도 흔쾌히 뜻을 함께했다. 기부처를 정하는 데는 긴 고민이 필요 없었다. 이 전 회장이 40여 년간 몸담으며 남다른 애정을 쏟은 곳이 새마을이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옥천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군북면협의회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전달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누구



보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뻐하셨을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승우 씨는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어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군북면에서 김치 나눔 같은 봉사 활동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리며 일손을 보탠다. 퇴직한 이후에는 정식으로 새마을가족이 되어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품고 있다.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늘 대화의 중심이 된다. 약주를 즐기시던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어떤 농담을 건네셨을까 상상하기도 하고,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그중에서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의 유산 같은 한마디가 있다. ‘이 바다가 저 바다다.’ 내 마음이나 상대의 마음이나 다를 바 없으니, 언제나 상대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라는 아버지의 깊은 지혜였다. 어린 시절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넓고 깊은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이승우 씨는 말한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분이었고, 옥천과 마을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이름 석 자에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 자리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는 정도이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셨던 봉사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강강술래의 달빛을 따라 진도의 가을을 걷다 전남 진도



명량대첩축제에서 펼쳐진 해전 재현 공연(위), 진도타워에 자리한 이충무공 동상(아래)

등근 보름달이 차오르는 결실의 계절, 남도 끝자락 진도에는 오래된 가락이 어김없이 울려 퍼진다. 풍요로운 밤 손에 손을 맞잡고 돌던 강강술래의 고장답게, 진도는 걸음마다 문화와 역사의 깊은 숨결이 배어 있는 곳이다. 거센 소용돌이 너머 승리의 기억을 품은 울돌목부터 그윽한 묵향이 번지는 운림산방, 다도해를 붉게 물들이는 황홀한 세방낙조까지. 옛 노랫가락을 따라 걸으며 보배로운 섬 진도가 건네는 가을 이야기를 만나본다.

글 편집실

진도대교 아래 흐르는 명량의 시간

진도대교·울돌목

여행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진도대교를 건너며 시작된다. 해남과 진도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남도 바다와 고유의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진도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다. 차창 밖으로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고, 다리 아래 세찬 물살이 일렁이는 모습을 마주하면 비로소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교각 너머로 굽이치는 바닷길은 명량해협, 즉 우리말로 ‘울돌목’이다. 좁은 병목 지형과 험준한 암초 탓에 조수가 바뀔 때

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고 빠른 물살이 휘돌며 바위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최고 유속이 시속 20km에 이를 만큼 거센 물길을 자랑하는 이곳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무찌르며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의 무대다. 인근 망금산 정상에 자리한 진도타워에 오르면 진도대교와 울돌목, 바다 건너 해남 우수영 일대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명량의 승전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이 타워 주변에는 바다를 굽어살피는 이충무공 동상과 물살체험장이 자리해 있어 당시의 숨결을 차분히 따라가기에 좋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명량해상케이블카나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투명한 바닥을

통해 발아래로 소용돌이치는 물길을 더욱 아찔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초가을 무렵이면 이 일대는 명량대첩축제로 다시 한번 활기를 띤다. 출정 행렬과 해전 재현 공연, 진도아리랑과 강강술래 등 남도의 구성진 가락이 어우러지며 오래전 바다 위의 승리는 오늘의 축제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특히 왜군에게 아군의 병력이 많아 보이도록 여인들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다고 전해지는 강강술래의 등근 원무 속에는 단순한 승전을 넘어 나라를 지켜낸 민초들의 지혜와 공동체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구름 숲 고택에 번진 그윽한 묵향 운림산방

진도 여행에서 예향의 맛을 가장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침철산 자락 아래 안온하게 자리한 운림산방이다.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숲을 이룬다는 이름처럼, 사계절 수려한 산세와 고즈넉한 한옥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담채화 같은 풍광을 자아낸다.

운림산방은 조선 후기 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 선생의 삶과 예술 흔이 고스란히 깃든 공간이다. 화려한 기교 대신 먹의 그윽한 농담과 선비의 기품을 담아내는 남종화는 허련 선생의 손끝을 거치며 남도의 독보적인 화풍으로 꽃을 피웠다. 스승 추사 김정희가 타계하자 고향 진도로 돌아와 화실을 짓고 여생을 보낸 곳으로, 일가 직계 5대에 걸쳐 200여 년간 화맥이 이어져 온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예술의 산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빼어난 조경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어디서 셔터를 눌러도 그림이 되는 풍경 덕분에 여행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진다. 중심에 자리한 네모난 연못 ‘운림지’와 작은 섬, 그 위로 붉게 피어나는 백일홍(배롱나무꽃)은 운림산방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으로 꼽힌다. 수면 위로 비치는 침철산의

능선과 단아한 초가 화실이 겹쳐질 때면, 마치 살아 숨 쉬는 옛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바람결에 사각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벗 삼아 돌담길과 정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일상의 마음도 어느새 맑고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경내에 마련된 소치기념관과 진도역사관에서는 허련 선생의 작품은 물론 대를 이어온 남도 화맥의 걸작과 유묵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은은한 묵향이 번지는 고택을 여유롭게 거닐며 남도 전통 회화의 뿌리와 수백 년을 이어온 예술의 결을 가슴 깊이 마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루의 끝, 다도해가 붉게 물드는 곳 세방낙조

진도 여행의 하루를 가장 황홀하고 아름답게 매듭짓고 싶다면 섬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세방낙조전망대로 향해보자. 전망대로 향하는 해안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목적지에 닿기 전부터 여행자의 설렘을 한층 끌어올린다.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목에서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은은한 갯내음이 차 안으로 밀려들어 남도



세방낙조에서 바라본 해넘이

최고의 낭만 드라이브를 선사한다.

해안길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세방낙조는 우리나라에서 해넘이가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 손꼽힌다. 쪽빛 바다와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 사이로 붉은 해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숨 막히도록 찬란한 풍경을 연출한다. 특히 공기가 맑고 투명해지는 가을은 낙조의 색감이 가장 짙고 또렷해지는 계절이다. 하늘과 바다가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 등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며 빛어내는 이른바 ‘오색낙조’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며, 늦은 오후의 서남해 하늘을 단풍보다 더 짙은 노을빛으로 물들인다. 전망대에 서면 손가락섬(주지도), 발가락섬(서면 양덕도), 사자섬 등 재미난 이름을 가진 다도해의 무인도들이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이 들어온다. 서서히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면 짙은 먹빛 실루엣으로 남은 다도해와 함께 어둠을 맞이한 바다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진도대교 아래서 만난 명량의 뜨거운 호국정신, 침철산 자락 운림산방에 머물던 그윽한 묵향, 그리고 다도해를 수놓은 오색빛 낙조까지 이어진 진도의 가을 여정은 한 편의 남도 가락처럼 여행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따스하고 깊은 여운을 전한다.

유튜브에서
'송가인 - 진도아리랑'
듣기

⏮ ⏪ ⏩ ⏭

송가인 -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은 남도 소리의 흥과 정서를 담은 진도의 대표민요다.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전해지는 진도는 예로부터 우리 가락이 깊게 뿌리내린 고장으로 불려왔다. 그중 구성진 가락과 흥겨운 후렴이 어우러진 진도아리랑은 진도 여행의 정취를 친근하게 전해준다.

?

조선 후기 남종문인화의 거장 소치 허련이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던 곳으로, 침철산 자락에 자리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운림산방 ② 소치서원 ③ 명량산방

새벽중 퀴즈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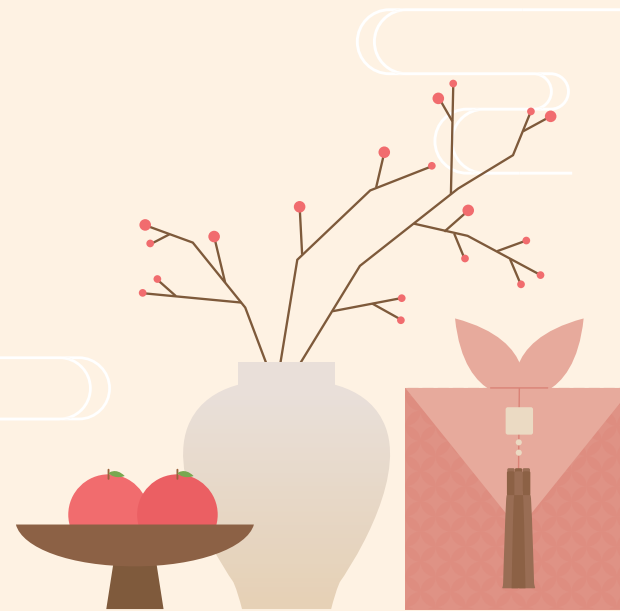
백일홍이 핀 운림산방의 고즈넉한 풍경 <출처 : 국가유산청>



추석 밥상 위 마음을 여는 안부의 기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정겨운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한 밥상도 때로는 오가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서먹해지곤 한다. 반가운 마음에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나 상처가 되기도 하는 법. 이번 명절에는 다정한 안부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 대화의 물꼬를 터줄 ‘안부 체크리스트’와 함께 편안한 명절 대화를 만드는 세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건네기 10초 CHECK! 명절 안부 체크리스트

- **[외모 평가]** 만나자마자 외모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기
- **[취업·결혼]** 부담스러운 질문을 인사치레로 묻지 않기
- **[열린 안부]** “힘들지?”보다 “어떻게 지내?”라고 묻기
- **[경험 비교]** 내 경험에 빗대거나 남과 비교해 말하지 않기
- **[답변 존중]** 대답이 짧아도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기다리기
- **[경청 우선]** 선부른 조언보다 끝까지 들어주기
- **[친척 비교]** 직장·성적·결혼 등 남과 비교하지 않기
- **[민감한 화제]** 연봉·집값·출산 등은 먼저 묻지 않기
- **[농담 주의]** 가벼운 장난도 상대에겐 상처가 됨을 기억하기
- **[분위기 전환]** 어색해지면 모두가 편안한 주제로 넘어가기

하나라도 뜨끔했다면?
이번 추석엔 질문보다 맞장구를 한 번 더!

사적인 질문은 SKIP, 안부는 가볍고 편안하게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묻고 싶은 말도 늘어난다. “요즘 일은 어때?”, “결혼 계획은?”, “취업 준비는 잘돼 가?” 한 두 마디 건네다 보면 어느새 안부가 ‘질문 타임’이 되기도 한다. 결혼이나 출산, 취업, 연봉 같은 사적인 이야기는 묻는 이에게는 가벼운 궁금증이어도 듣는 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나 사회 현안처럼 의견이 갈리는 화제도 명절 밥상에서는 잠시 내려두자. 대신 드라마, 음식, 여행, 취미처럼 누구나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특히 전에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건네는 한마디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다정한 관심이 된다. 궁금한 것을 모두 묻지 않아도 반가운 마음은 충분히 전할 수 있다. 이제는 가벼운 안부로 말문을 열고, 상대가 꺼내는 이야기에 천천히 귀 기울여보자. 뜻밖에 더 길고 따뜻한 대화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해결사 모드는 잠시 OFF, 듣기 모드는 ON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팬스레 해결사가 되고 싶어진다. “내가 그 나이 때는 말이야”,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하며 경험담과 조언이 줄줄이 따라오기 쉽다. 물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넨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위로보다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처럼 내 기준으로 단정하는 순간 대화는 금세 멈춰버린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해답보다 맞장구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꼭 알맞은 말을 보태야 좋은 대화가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고개 한 번 끄덕이는 일이 어떤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번 명절에는 조언할 타이밍보다 들어줄 타이밍을 먼저 살펴보자.

대화가 아슬아슬할 땐, 화제도 U-턴!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니?”, “집은 언제 살 거야?” 명절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날아든다.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바로 정색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그렇다고 억지로 답하자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럴 땐 대화에도 ‘U-턴’이 필요하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잡채 정말 맛있네요. 직접 하셨어요?”처럼 한마디 가볍게 받고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가면 된다. 꼭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직 천천히 생각 중이에요”, “정해지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처럼 짧게 답하고 웃으며 말머리를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내가 질문하는 쪽이라면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대답이 짧아지거나 웃음으로 얼버무린다면 그쯤에서 멈춰주는 여유를 가져보자. 끝까지 답을 얻어내기보다 서로가 편안한 선을 지켜주는 것. 명절 밥상에서는 말 잘하는 기술보다 분위기를 잘 읽는 센스가 더 빛날 때가 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가을 풍경 속 비밀

오감(五感)을 이토록 풍성하게 깨우는 계절이 또 있을까. 높고 깊어진 하늘, 색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단풍, 귓가를 스치는 바람과 바스락대는 낙엽 소리. 코끝을 강렬하게 스치는 은행 열매 냄새마저 가을이 왔음을 속삭인다. 그런데 이 다채로운 풍경 속에는 뜻밖에도 정교한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 가을이 한 걸음 더 멀어지기 전에 눈부신 계절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자.

글 편집실



가을 하늘은 왜 유독 높고 푸르게 느껴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예로부터 청명하고 드높은 하늘은 가을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왜 가을 하늘은 유난히 더 높고 푸르게 느껴지는 걸까. 비밀은 ‘빛의 산란’에 있다. 산란이란 태양 빛이 대기 중의 질소나 산소 같은 기체 분자와 부딪히며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이다. 이때 파장이 짧은 파란빛은 붉은빛보다 더 많이 산란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늘이 푸르게 보인다.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파란 하늘도 결국 태양 빛과 지구의 대기가 만들어낸 풍경인 셈이다. 가을에는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아지면서 대기 중 수증기와 미세한 입자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아 하늘의 푸른 빛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적고 시야가 탁 트이는 날이 많아지는 것도

한몫한다. 그래서 같은 파란 하늘이라도 가을이면 유독 맑고 깊은 인상을 준다. 실제 하늘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맑고 투명한 대기 덕분에 시야가 멀리까지 이어지면서 한층 더 높고 푸른 하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가을 단풍은 겨울나기를 위한 생존 전략?

가을이 오면 여름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무들이 하나둘 옷을 갈아입는다. 세상을 온통 울긋불긋 물들이는 단풍은 가을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나뭇잎은 왜 가을마다 색색으로 물드는 걸까. 나무의 잎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하지만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며 잎의 활동을 서서히 줄이고, 엽록소도 점차 분해된다. 녹색이 사라지면서 잎 속에 있던 카로티노이드의 노란색과 주황색이 드러나고, 일부 나무에서는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져 붉은빛을 띤다.

가을 풍경에 관한 OX 퀴즈

※ 정답의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Q1 가을에는 다른 계절보다 실제로 하늘이 더 높아진다? ☐ O ☒ X

Q2 단풍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O ☒ X

Q3 은행나무의 고약한 냄새는 노랗게 물든 잎에서 난다? ☐ O ☒ X



새벽중 퀴즈
바로가기



나무마다 지닌 색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 노랗고 붉은 단풍이 한데 어우러진 다채로운 가을 풍경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나무는 잎에 남아 있는 영양분을 줄기와 뿌리로 되돌려 보내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화려하게 물든 잎 아래에서는 겨울을 견디기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는 단풍은 사실 나무가 잎을 떠나보내며 긴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풍경인 셈이다.

은행나무에서는 왜 고약한 냄새가 날까?

가을 길목에서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은행 열매. 절로 피하게 되는 지독한 냄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냄새가 퍼져야 비로소 가을을 실감하곤 한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까. 사실 냄새의 주인공은 흔히 은행 열매라고 부르는 씨앗의 말랑한 겉씨껍질이다. 씨앗이 익어 땅에 떨어지고 무르면서 부티르산과 헥산산 같은 휘발성 성분이

퍼져 특유의 냄새를 풍긴다. 특히 땅에 떨어진 씨앗이 사람이나 자동차에 밟히면 겉씨껍질이 터지면서 냄새가 더욱 강하게 퍼진다. 악취 때문에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은행나무는 도시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는 나무다. 대기오염과 병충해에 강하고 황금빛 단풍까지 선사해 도심 가로수로 널리 활용돼 왔다. 거리 곳곳을 노랗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 뒤에 이런 반전이 숨어 있는 셈이다. 다만 은행알을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어 가을의 별미라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7월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청년 해외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추진 및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반찬 나눔 사업과 새마을 해외봉사단의 교육봉사 및 환경 개선 활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한 가나 대사 내방

지난 8월 18일 최고조(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중앙회를 방문했다. 김광림 중앙회장은 최고조 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마을교육과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나는 1973년부터 새마을교육에 참여해 2025년까지 130명이 수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녀회와 협동조직을 중심으로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지구촌새마을운동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라오스 고위급 공무원 초청 새마을교육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라오스 중앙-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9명을 초청해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고 새마을역사관을 견학했다. 특히 9월 1일 최형재 사무총장은 키깨오 싱나봉 라오스 농림환경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농촌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주민 역량 강화와 현지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헌혈증 기부

지난 9월 5일 열린 '2026 청년새마을 워크숍 Next Wave'에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들이 모은 헌혈증 800여 장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증했다. 회원들은 '청년에겐 피크타임, 아이에겐 골든타임'을 주제로 6~8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청년 행동 선언'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에 앞장서고, 봉사활동과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청년새마을운동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현장 지원

서울시새마을회(회장 김연포)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 9명을 파견했다. 봉사자들은 3일간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을 이수한 후 지난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배치돼 상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새마을의 공동체 정신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참석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새마을지도자 120여 명과 함께 지난 8월 1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되찾은 국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이어 나라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청춘의 농촌 일손 돕기

직장·공장대구시협의회(회장 권기준)와 대구시대학 새마을동아리연합회는 군위군 소보면을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고추 농가의 일손을 보탬고, 농촌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구연동화와 족욕, 마사지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EM 흙공 던지기와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관광새마을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했다.



청년마음살롱 아로마 컬러테라피

인천시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김학만)는 지난 7월 11일 인천시 새마을회관에서 청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2026 청년마음살롱'을 운영했다. 이날 인천시 청년 20명은 전문 강사와 함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아로마 향수를 직접 만들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만 회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건강한 일상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베트남 빈민성 해외협력사업 추진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8월 15일 베트남 빈민성에서 해외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주택 2채와 도서관 1동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광주시새마을회와 목송그룹, 광주전남베트남교민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마련해 생활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가족독서퀴즈대회 개최

문고대전시지부(회장 진춘식)는 지난 7월 4일 유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우리는 문화가족, 독서골든벨을 울려라!'를 주제로 가족독서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자 50가족을 비롯해 초청 내빈과 지역주민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퀴즈를 풀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눴다. 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며 독서의 가치를 되새기고,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문고 활성화에도 뜻을 모았다.



집중호우 수해복구 활동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8월 21일 새마을지도자 40명과 함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마을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정을 방문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주택 내·외부의 토사를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세척하는 등 복구에 힘을 보탰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학새마을동아리 농촌 일손 돕기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학새마을동아리 '다가치'(회장 김신우)는 지난 8월 29일부터 1박 2일간 세종시 전동면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45명은 잡초 제거와 폐하우스 정리 등 농가 일손을 도왔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2026 함께 어울림 생활농촌활동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이천시 백사면 일원에서 '2026 함께 어울림 생활농촌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경기도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회원 24명이 참여해 농촌 일손 돕기와 어르신 대상 맞춤형 재능봉사,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향토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하며 지역의 농업과 문화를 살피고, 농촌의 일상과 공동체의 의미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강원핵심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강원도협의회(회장 백상원)는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금호설악리조트에서 시군 및 읍면동 협의회장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홍순선 강원도새마을회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회원들은 특강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지도자의 역할을 되새기고, 우수 시·군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별 활동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대학새마을동아리 농촌 봉사활동 전개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8월 27일 충북 영동군 일원에서 도내 8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포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염색봉사를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남재호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열정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대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추진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을 비롯한 충청남도 대학생 17명과 함께 라오스에서 국제협력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3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회원들은 현지 초등학교를 찾아 개인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벽화 그리기와 학교 외벽 정비에 나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제5회 전북형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추진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가 주최하고 전라북도협의회(회장 박용운)가 주관한 '제5회 전북형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이 지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럽동성에서 진행됐다.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현지 교육시설 보수와 벽화 그리기, 준공식을 진행하고 베트남 청년들과 공연·문화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졌다. 5년째 이어지는 이번 사업은 나눔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체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새린이 육성사업

문고경상북도지부(회장 김성환)는 칠곡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2026 꿈나무 새린이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미래세대가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이들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배우는 한편, 그림 그리기와 색칠 활동을 통해 개성 있는 에코백을 만들며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혀갔다.



농촌상생 희망나눔 봉사활동 전개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영암군 일원에서 '2026 MZ세대와 함께하는 농촌상생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순천대·초당대·세한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와 인지 향상 프로그램, 천연 비누·미니정원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마을 환경정화와 고추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며 지역사회 상생의 가치를 되새겼다.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최만환)는 지난 8월 29일부터 1박 2일간 도새마을회 임원과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맡을 역할과 만들어갈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직접 만든 드립용 커피백은 향후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봉사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천연염색 체험

제주도부녀회(회장 홍경애)는 지난 8월 25일 결혼이주 여성과 읍면동 부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염색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치자와 감 등 제주 전통 천연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며 제주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접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경애 회장은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복한 효나들이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원로 새마을지도자들을 초청해 '제3회 효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생을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원로 지도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의 새마을 활동과 추억을 함께 되새겼다.



'2026 국민공감대상'

매거진 '새벽종' 공공브랜드부문 대상 수상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조사기간 2026. 10. 30.(금)까지

조사대상 '새벽종' 독자 누구나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설문 참여

48

2026 09+10 제28호 Magazine 새벽종

49



#수제쿠키나눔 #취약계층지원
#이웃사랑

서울 광진구새마을회 사랑을 굽는 수제쿠키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을 위한 수제쿠키 나눔
-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직접 만든 수제쿠키를 총 600가정에 전달

어떻게 했나요?

- 주 2회, 1개 동 40가정을 대상으로 순차적 나눔 실시
- 이웃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눔

Point

-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증진
- 이웃을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조성



#생명존중 #문화확산
#지역공동체

서울 영등포구새마을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서로를 살피는 건강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

어떻게 했나요?

- 현수막 등을 활용해 생명존중 메시지 전달
- 주민과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 홍보활동 전개

Point

-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
-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



#이동세탁봉사 #가사돌봄
#취약계층지원

부산 영도구새마을회 취약계층 세탁 및 가사 지원

무슨 일을 했나요?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세탁 및 가사 지원

어떻게 했나요?

- 이동식 세탁 차량을 활용해 세탁물 수거·전달
-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가사 돌봄

Point

- 소외된 이웃의 일상에 실질적인 편의 제공
- 취약계층 가정 내 위생 환경 개선 및 생활 돌봄 지원



#풍수해예방 #환경정비
#지역사회안전

부산 부산진구새마을회 풍수해 대비 환경정비 활동

무슨 일을 했나요?

-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침수 취약지역 안전 점검
-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난 예방

어떻게 했나요?

- 침수 취약지역 배수로·우수관 쓰레기 수거
- 하천·도로변 방치된 폐기물 정화

Point

- 배수로 장애물 제거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
-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



#새마을세계화 #캄보디아나눔
#지속가능협력

대구 동구새마을회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무슨 일을 했나요?

- 캄보디아 남낙크지아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나눔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 24명 현지 마을 방문 및 문화교류 추진
- 학생 300여 명에게 간식과 학용품 전달

Point

- 3년간 이어온 현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체 의식 확산



#봉사자의날 #장학금전달
#따뜻한공동체

인천 계양구새마을회 계양구 봉사자 후원의 날 개최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사회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 전달
-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

어떻게 했나요?

- 지역사회 봉사자 100여 명을 초청해 감사행사 개최
- 지역 인재 2명에게 장학금 전달

Point

- 교류 활동을 통해 봉사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 마련
-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미래세대에도 전달



#이웃사랑실천 #김치나눔

#지역사회안전망

광주 남구새마을회 폭염 극복 이웃사랑 실천

무슨 일을 했나요?

- 폭염 기간 취약계층 돌봄
- 반찬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열무김치 전달
-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

Point

- 이웃의 정서적 고립감 완화 및 안전망 강화
- 폭염을 대비한 맞춤형 지원 연계



#관광새마을 #안전한피서문화

#깨끗한계곡

경기 안양시새마을회 안전한 피서 문화 만들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올바른 계곡 이용문화 확산
- 깨끗하고 쾌적한 계곡 환경 조성

어떻게 했나요?

- 병목안계곡 일대에서 피서객 대상 주차·교통 지도
- 쓰레기 투기 및 취사 등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 활동

Point

- 모두가 함께 누리는 쾌적한 피서환경 만들기



#우리동네안전환경지킴이 #교통안전캠페인

#지역사회안전

대전 동구새마을회 교통안전 캠페인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사회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올바른 보행습관 및 교통질서 확립

어떻게 했나요?

- 대동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무단 주차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Point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 조성
- 캠페인과 현장 계도를 통해 주민의 교통질서 인식 개선



#문고둔내면분회 #독서문화교실

#문화소외계층

강원 횡성군새마을회 친환경 액자 만들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양로원 어르신 대상 독서문화교실 운영

어떻게 했나요?

- 어르신들과 문고 회원들이 함께 모스이끼 액자 만들기

Point

-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새로운 여가·문화활동 경험 제공
-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 마련



#관광새마을
#깨끗한영월
#청년새마을

강원 영월군지회 동강뗏목축제 환경정화 활동

무슨 일을 했나요?

- 청년회원들과 함께 축제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문화 조성

어떻게 했나요?

- 관광객 이동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관광문화 실천 캠페인 전개

Point

-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정화활동
-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재활용품수거
#탄소중립
#행복한공동체

충북 영동군새마을회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생활 속 재활용품 수거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가족들이 참여해 재활용품 집중 수거
- 수거한 폐농약병 등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

Point

- 재활용품 수거를 통한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



#관광새마을운동
#건전한관광문화
#새마을정신

충남 보령시지회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 실천운동

무슨 일을 했나요?

- 품격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미소 문화 확산

어떻게 했나요?

-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현장 캠페인

Point

-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 및 실천 확산



#행복가득한
#새마을정류장
#마을벽화

전북 익산시새마을회 마을 버스정류장 벽화 그리기

무슨 일을 했나요?

- 마을 힐링 공간 및 명소 조성

어떻게 했나요?

- 대학·청년회원들이 참여해 마을 버스정류장 벽화 그리기
- 밝은 분위기를 위한 새마을 캐릭터 적극 활용

Point

- 평범한 버스정류장을 포토존으로 조성
- 새마을운동 및 캐릭터 홍보



#자살예방
#생명존중
#지역사회안전망

충남 공주시새마을회 생명존중 문화 확산

무슨 일을 했나요?

-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확산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어떻게 했나요?

- 공주시와 공주시새마을회의 업무협약 체결
- 새마을회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Point

-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
- 위기대응 교육 및 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삼계탕나눔
#활기찬공동체
#은기나눔

전남 보성군새마을회 여름철 삼계탕 나눔

무슨 일을 했나요?

- 여름철 어르신 보양식 나눔

어떻게 했나요?

- 청년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어르신 150명에게 삼계탕 나눔
- 보성군립국악단 공연 등 문화나눔 행사 운영

Point

-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합동생신상 #효사랑나눔
#지역공동체돌봄

전남 강진군새마을회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 드리기

무슨 일을 했나요?

- 지역 홀몸 어르신을 위한 합동 생신상 마련
-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불 전달

어떻게 했나요?

- 부녀회원들이 제철 음식과 떡, 케이크,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
- 마을 어르신들의 생일 축하와 감사의 마음 전달

Point

- 공경과 나눔의 문화 확산
- 주민 참여형 돌봄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대감 강화



#벼룩장터 #무료도서교환
#자원순환

경북 경주시새마을회 사랑나눔 벼룩장터 및 무료 도서 교환 시장

무슨 일을 했나요?

- 중고물품 나눔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와 시민이 함께 벼룩장터 운영
- 지역 농산물 직거래, 중고물품, 도서교환 및 먹거리 나눔 진행

Point

-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농가 지원
- 자원순환 및 이웃 간 나눔문화 조성



#고령군새마을부녀회 #문화교류
#지역사회정착

경북 고령군새마을회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무슨 일을 했나요?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식문화 체험
-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 마련

어떻게 했나요?

-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전통음식 만들기

Point

-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



#급식봉사 #이웃사랑실천
#진주시새마을회

경남 진주시새마을회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자원봉사

무슨 일을 했나요?

-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점심 식사 대접

어떻게 했나요?

- 30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 참여
- 식재료 손질부터 배식, 설거지, 뒷정리까지 전 과정 지원

Point

-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한 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 지원
- 안부와 정을 나누며 이웃사랑 실천



#집중호우 #수해복구
#일상회복

경남 통영시새마을회 수해복구 활동

무슨 일을 했나요?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
- 12일간 650명의 통영시 새마을지도자가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

어떻게 했나요?

- 도로에 쌓인 토사·퇴적물 제거 및 침수 피해 가구 가재도구 정리
- 수해복구 봉사자들을 위한 중식 및 간식 지원

Point

-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 수해복구 성금 2천만 원을 모금해 통영시에 기탁



#태극기달기 #나라사랑실천
#새마을공동체

제주 제주시새마을회 광복절 맞이 태극기 달기

무슨 일을 했나요?

- 태극기 달기 실천을 통한 나라사랑 운동 전개
-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

어떻게 했나요?

-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 곳곳을 방문하며 태극기 달기 홍보
- 태극기 게양 의미와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 독려

Point

-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 확산
- 새마을지도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실천



새벽종 독자 의견

〈새벽종〉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 스캔

〈새벽종〉 2026년 07+08월호



<새마을-ing>

2026 새마을 외교그룹(SDG) 제1차 회의는 지구촌 농촌 개발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준비가 배운 새마을운동의 힘이 지역 곳곳에 잘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박명옥



<우리동네 새마을 ②>

어른이 동요 부르기 기사를 읽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손주를 두었을 법한 어르신들이 교복과 개구리 복장을 하고 귀여운 울동을 선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요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잊고 있던 순수한 동심을 되찾는 의미 있는 축제네요.

박상준



<청년, 새마을하다>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체험 교실> 소식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생태계 질서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친형·친언니 같은 대학생 멘토들이 함께해 청소년들에게 친근함을 더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그 노래, 그 길>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지켜낸 의용수비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울릉도의 신비로운 풍경과 아름다움을 지면으로 만나니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지켜온 분들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차명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판매사업 등록업체

판매사업은 신뢰가 먼저입니다.

직접 생산·가공하는 2대 가업, 완도금복식품

유통업체가 아닌 공장직영·직접생산업체로, 품질인증 기반·정확한 원산지 표기·안정적 공급 대응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 중앙회 판매사업 경력만 30여 년!
판매사업의 구성부터 납품까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복식품의 계절별 주력상품 안내

봄철 추천품목

가정용·행사용·선물용·실속품목



맥반석완도미역
300g/100인분
박스/30개입



맥반석완도다시마
300g/100인분
박스/40개입

소포장 제품들도
다양하게 구성 가능합니다.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지회 판매사업용
구성 상담 가능



가을·겨울 추천품목



완도청각 300g
대용량 해조류 실속품목
박스/50개입



고창돌김 50매
고급김 판매사업 추천품목
박스/50개입



구이김 5매x8봉
반찬용·명절판매구성가능
박스/25개입



새우젓 2kg
김장철·행사용 수요품목
박스/8개입

금복식품 브랜드 스토리

금복식품은 단순히 미역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엄마가 안심하고 끓이는 미역국,
아이에게 믿고 먹이는 김,
가족 밥상에 올려도 부끄럽지 않은
완도의 깨끗함을 전합니다.

새마을 판매사업에 어울리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금복식품

금복식품이 다른 이유

- 직접 생산·가공
- 2대 가업·Since1983
- 품질인증기반
- 정확한 원산지표기
- 안정공급·행사물량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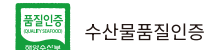
단순 유통업체가 아닌 완도에서
직접 생산·가공하는 전문업체

등록품목 기준 공급 가능

미역류	완도미역60g~300g
다시마류	완도다시마60g~300g
김류	고창돌김, 파래김, 돌김, 조미김, 도시락김
젓갈류	새우젓, 멸치액젓
기타 해조류	청각 300g

*본 광고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록품목 기준으로
상담 및 납품됩니다.

*제품별 원산지, 규격, 입수, 포장구성은
상담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61-554-7836
010-2628-8594

판매사업 준비 중이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금복식품이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등록품목확인·제품구성·원산지안내·납기상담·행사물량대응

